동학농민혁명 스토리(웹소설) 공모전

응모분야	웹소설	접수번호	*이 부분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작품제목	*녹두장군의 전담 호위가 되었습니다*		

16 : 잃을 게 없는 자의 각성

현세의 시간은 이날 불타버린 근거지에서 영원히 멈춰버린 듯했다. 연희와 현중의 시신을 발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그는 굳어버린 아교처럼 그 자리에 주저앉은 채 움직이지 않았다.
던져진 돌멩이가 일으킨 수면처럼, 일렁이는 까만 눈동자만이 산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듯했다.

"우리 연희, 불쌍해서 어쩐다냐. 여린 것이... 아가를 지켜 주겄다고 그 불길을 견뎠단 말이여? 이 썩어 문드러질 놈들! 사람 가죽을 쓰고 어찌 그럴 수 있당가? 그것들이 사람이여?"
"사람도 아니제! 아가들이랑 힘없는 노인들만 있는 곳을 뭣 헌다고 공격을 혀?"
"우리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분풀이를 한 모양이여, 쌍놈의 것들이!"

사기가 하늘을 찌를듯했던 농민군의 분위기도 지금만큼은 초상집을 방불케 했다. 지극정성으로 부상자를 돌보던 연희와 수십 년을 동고동락 하다시피 한 노인들, 그리고 생떼 같이 어린 아이들의 죽음이 너무나 허망하고 원통해서.

"그동안 고생이 많았지?"

화중은 입고 있던 백의를 벗어 한 몸처럼 굳어버린 연희와 현중의 주검에 살며시 덮었다. 덜덜 떨리는 손끝이 자꾸만 곱아들어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했다.
지금 당장 무너지면 안 된다는 일념하나로 화중은 온몸을 짓누르는 서슬 퍼런 원한을 감내하고 또 감내했다.
이윽고 속옷조차 걸치지 않고 멀거니 서있는 화중의 어깨에 하얀 백의가 덮였다.

"..화중아."

봉준이었다. 그는 차마 화중을 위로하지 못하고 제 옷을 벗어주는 것으로 마음을 대신했다. 그의 이러한 행동에는, 일전에 아비를 잃었을 때 화중에게 받았던 마음만큼이나 절절함이 묻어났다.

화중은 뒤돌아보지 않고 이를 사리물며 말했다. 가까스로 참아내는 울음이 오히려 더 아팠다.

"성님, 현세가 걱정이오. 그놈, 이곳 무장까지 오는 내내... 싱글벙글 해서는.., 지 동상이랑 연희 만난다고 들떠 가지구..."

제 마음도 천 갈래 만 갈래로 찢겨나가는 주제에 현세를 걱정하는 화중이었다. 봉준은 화중의 어깨에 제 손을 지그시 올리며 조곤이 말했다.

"현세는 걱정 말어. 그놈 아주 독한 놈이여. 너는 네 걱정이나 혀."

물속에 잠긴 듯 불투명한 날들이 계속되었다.
더욱이 현세의 정신은 수면위로 올라올 기미조차 보이지 않았다.
그는 죽은 농민군을 위해 장사를 치러주는 장소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가는 길, 마지막 배웅이라도 해야지 않겠냐는 말에도 묵묵부답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현세를 탓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는 표현이 맞을 터.
썩어빠진 관리 손에 부모를 잃은 게 불과 몇 달 전이었다. 거기다 하나뿐인 동생까지 그리 죽었으니, 어찌 사람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현세 속에 든 이준이 느끼는 고통은 짐작조차 하지 못한 채 심심한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현세야, 그래도 산 사람은 살어야제. 이 죽이라도 한 그릇 떠봐."
"..."

그때도 현세는 작게 고개만 끄덕일 뿐 눈동자는 죽은 물고기마냥 흐린 빛을 띠었다. 농민군의 이동 경로가 영광을 거쳐, 함평까지 다다랐을 무렵이었다. 입이 붙어버린 마냥 말이 없던 현세가 저물어가는 하늘을 바라보며 작게 말했다.

"망치는 만져 봤을까? 어쨌거나 토르 그자식도 신이니까, 만났겠지?"

순간, 며칠 째 잠도 이루지 못하고 현세 곁을 맴돌던 개남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현세가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그는 현세가 극심한 충격을 받아 벙어리가 된 게 아닌가, 하고 의원을 잡아오려던 참이었다.

"아가, 너 방금 뭐라 그랬냐? 워메! 이 아재가 얼매나 걱정한 줄 알어? 인자 좀 괜찮은 겨?"
"..."

현세는 마치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처럼 계속해서 하늘만 올려다보았다. 개남은 그가 미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 가던 걸음을 멈추고 앞을 가로막았다.

"너, 대체 왜 그려!? 너만 가족을 잃었냐? 우리 모두가 어매나 자석을 잃었어! 이람시롱 미친놈처럼 굴면 뭐가 나아져? 시방 정신 못 차리냐!?"
"개남 아재."

잔잔한 미풍을 타고 번지는 논두렁 위 빼곡한 벼처럼 평온한 음성이었다.
개남은 어쩐지 그게 더 불안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지만, 열여덟밖에 먹지 않은 현세에게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은 사람의 분위기가 났다.
개남의 음성이 답지 않게 떨렸다.

"너, 괜찮냐?"
"다음 격전지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뭐시라고?"

묻는 말과는 전혀 다른 대답에 개남은 또 한 번 놀랐다. 이제 보니, 이 놈... 복수심 때문에 영혼까지 어떻게 된 모양이었다.

'눈까리가 돌아 부렀어. 확실혀.'

언뜻 붉어 보이는 현세의 동공은 터지기 직전 화산 속처럼 이글이글 타오르고 있었다. 현세는 제 몸까지 태워서 관군들을 향해 불벼락을 내릴 각오를 마친 것 같았다.
하기야, 우리라고 뭐가 다를까. 개미만도 못한 목숨취급을 받을 바에는 저 위에 양반 놈들을 저승길 길동무로 삼아 주는 것도 나쁘지 않았다.
더욱이 현세는 조금도 양보할 마음이 없어보였다.

"다음 격전지요."

아무리 미쳤어도 저놈 성질 급한 건 변함없는 듯했다. 개남은 진땀을 삐질삐질 흘리며 답했다.

"아마, 전주성에 도달하기 전에 터질 것 같어. 그놈들이 그곳을 쉽게 내어줄 리 없으니께."

현세는 고개를 끄덕이며 멈췄던 발을 다시 뗐다. 어쩐지 그의 입매가 약간 올라간 듯도 했다. 개남은 그런 현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어라 말하려다가 이내 멈추었다.

'저 놈 속이 속이겄어, 어디. 이 한 많은 세상 분풀이 좀 하게 두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암.'

언제부턴가 짓무른 발꿈치가 느껴지지 않는 현세였다. 그럼에도 그는 농민군의 행렬에 맞춰 착실히 걸었고, 쉬는 시간에는 우두커니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곤 했다.
개남과 말문을 튼 이후로는 날아드는 질문에 간단히 대답도 했다. 기색은 달라졌지만, 조금씩 제정신을 찾아가는 듯 보이는 모습에 현세를 따르던 조총부대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동학농민군이 월평리에 다다르자, 관군의 소식이 속속들이 전해지기 시작했다.

"접주님! 홍계훈이란 놈이 정예부대 800명을 이끌고 전주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이오! 시방 영광으로 남하중이라고 허는디, 어쩜 좋겄소?!"

봉준은 골똘한 표정을 지으며 눈살을 좁혔다.

"이틀 남았구먼."
"이틀이요?!"

신식 무기를 잔뜩 지고 내려온다는 소식답게, 농민군의 분위기가 삽시간에 수런댔다. 충천한 사기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뿌리는 농민인지라, 어느 정도로 접전이 이어질지는 쉬이 가늠하기 힘든 눈치였다.
봉준은 곁에 있던 현세에게 시선을 주며 말했다.

"이동 보다는 거점을 꾸리는 게 낫다고 보는디. 현세, 넌 어찌 보냐?"
"회선포나 야포와 정면으로 붙었다가는 개죽음입니다.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편이 훨씬 유리해요. 황토현 때처럼."

고저 없는 현세의 담백한 음성에는 어떤 뜨거움도 담겨있지 않았다. 봉 형, 봉 형, 하며 재간을 부리던 모습은 이미 사라진 후였다. 원래부터 이랬던 사람처럼, 무미건조한 눈빛에서는 아무 감정도 읽히지 않았다.
봉준은 미간을 잔뜩 좁히며 장성의 지형을 그려둔 종이로 눈을 내리깔았다.

'제 어미가 죽었을 때도 그러지 않던 녀석이.'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현세가 이토록 망가진 것을 보니 봉준은 입맛이 썼다. 총기를 잃어버린 눈을 마주할 때마다 간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차라리 그냥 전략에 집중하는 편이 나을 정도였다.
두 사람은 눈치재지 못했지만, 현세와 봉준은 각자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하도 빼닮아서 개남은 혀끝을 쯧쯧 차기를 반복했다. 봉준도 보통은 아니었지만, 독하기로는 제자도 스승 못지않았다.
개남은 펼쳐둔 종이를 툭툭 집적이며 화중에게로 화재를 돌렸다.

"저짝 무기를 무력화 시킬 방법이 없을까? 연속으로 포를 쏴대믄 이짝 숫자가 아무리 우세해도 버틸 재간이 없을 것인디."
"성님 말씀은..."

화중이 무어라 대답하기도 전에 현세가 불쑥 목소리를 냈다.

"일단 고지를 점령해야 합니다. 그리고..."

탱크 같은 게 있으면 좋으련만. 부질없는 생각이었지만 정말 그랬다. 딱 한 대만 대여해주면 저들의 살과 뼈를 바르고 불태워서 흔적도 남기지 않을 자신이 있는데.
봉준은 말끝을 흐리는 현세에게 채근하듯 물었다.

"그리고?"
"굴릴 만한 것. 이동식 방패랄까요. 몸을 가릴 수 있으면서도 총탄을 흡수 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순간, 봉준의 두 눈이 물 찬 제비가 일으킨 물보라처럼 일렁거렸다. 그거라면... 가능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봉준은 덥수룩하게 자라난 수염을 고르며 혼잣말을 했다.

"그렇단 말이지."

승리,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대감이 샘솟았다. 그것은 바로 억울하게 생을 달리한 농민군의 넋을 달래 줄 기회였다!
봉준은 두근대는 심경을 이성으로 누르며 차분하게 말했다.

"좋은 생각이 떠올라부렀어."

이제 남은 시간은 이틀뿐이었다.
그동안 현세는 조총부대에서 가장 뛰어난 사수 몇에게 탈취한 신식 무기 다루는 법을 알려주었다. 그것들은 단발식보다 훨씬 간단해서 대한민국에서 쓰는 무기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세는 농민군 어깨에 맞닿은 개머리판 각도를 바로잡아주며 말했다.

"찰칵, 소리가 나게 이 부분에 칵킹을 걸어주세요. 의식 격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조총을 쏠 때도 마찬가지에요. 호흡을 멈추지도 마세요. 들숨을 아주 가늘게 뱉어낸다는 마음으로 방아쇠를 당겨야 합니다."
"아따, 오께 오께여!"
"예! 썰이다, 이놈아!"

무겁기만 한 현세의 기분을 띄워주려고 농민군들은 저마다 배운 외국어를 남발했다. 그들의 새맑은 미소에 가슴 한켠이 따끔거리는 현세였지만, 겉으로는 티 내지 않았다. 그는 이미 조총을 버리고 죽창을 들기로 마음먹은 후였다.
현세는 월평장터와 황룡강변을 두르는 고지를 짚으며 그들이 주둔할 위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주었다.

"용현 아재네 팀은 이쪽을 맡아주세요. 만수 아재 팀은 황룡강 후미에서 쭉 올라가시고요. 사거리가 더 길게 확보돼서 황토현 때 보다는 유리할 겁니다."

문득, 이상함을 느낀 용현이 물었다.

"현세, 너는 어디다 진을 치는디? 어째 우리들 위치만 찍어주는 겨?"
"저는... 따로 할 일이 있습니다."

현세는 뼈마디가 불거지도록 주먹을 그러쥐었다. 총으로는 도저히 분이 풀리지 않았다. 그들의 면상을 이 두 손으로 직접 손봐주어야만 온전히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다.
아니지, 그래야만 온전히 숨을 거둘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는 두 번의 생을 통틀어 가장 지키고 싶어 했던 두 사람을 모두 잃어버렸다. 살아생전 이준의 엄마가 그랬던 것처럼, 현세는 연희와 현중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다. 바라는 것은 단지 그것뿐이었다.

하나 이제는 모든 것이 무(無)로 돌아가 버렸다. 꿈속에조차 찾아와 주지 않았다. 비현실적인 조선에서의 삶도 현실은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라도 하는 것처럼.
현세는 차라리 스스로 숨을 조절할 수 있기를 바랐다. 이 농민군을 빼닮은 개미처럼 말이다. 그냥 이대로 호흡을 멈춰서 이 빌어먹을, 기구한 삶을 살다 간 그들의 자취를 뒤쫓고 싶었다.
그 바람만큼은 꼭 이루리라, 결심했다.
현세는 의연하게 미소지으며 조총부대를 향해 말했다.

"아재들, 이번에도 다치지 마세요. OK?"